



김민석 국무총리·조국 대표,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

- 사회대개혁위원회 활동 대통령 보고, 조국혁신당 위원 추천 합의
【관련 국정과제】 9.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-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(월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사회대개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)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.
 - 지난 12월 15일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사회·정당·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의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- 김 총리는 위원회에서 논의될 과제들이 보다 폭넓은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.
- 이에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광장시민연대와 5개 정당 공동선언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운영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하며, 조국혁신당도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.
- 이번 면담을 통해 국무총리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 대통령에게 지속 보고하여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조국혁신당은 그간 유보되었던 위원 추천을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	책임자	과장	김기출 (044-200-2834)
		담당자	주무관	이종혁 (02-2100-2166)